**2018년도 제10기 야구심판 양성과정 11월 개강**

2018. 10. 15.(월)

KBO(총재 정운찬)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(KBSA. 회장 김응용), 명지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‘제10기 야구심판 양성과정’이 11월 23일(금) 개강한다.

명지전문대학에서 개강하는 이번 야구심판 양성과정은 매주 금‧토‧일요일 수업으로 10주간 총 16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과정과 5주간 총 64시간 교육의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.

일반과정은 만 19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, 전문과정은 일반과정 기수료자 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산하기관(한국리틀야구연맹, 한국여자야구연맹, 한국연식야구연맹 등) 소속 심판 중 단체장 승인을 받은 자, 기타 사회인(동호인) 야구리그에서 5년 이상의 심판경력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.

모집인원은 일반과정 140명, 전문과정 40명으로 수료자 전원에게는 KBO,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, 명지전문대학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 일반과정 수료자 중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KBO 및 KBSA 심판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(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)

입학원서는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. 접수기간은 오늘 15일(월)부터 23일(화) 오후 4시까지로 마감 당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하며,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.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 후 24일(수)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(edu.mjc.ac.kr)와 전화(02-300-3981)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<원서 접수처>

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사회교육관 8층 810호 야구심판학교 담당자 앞. 끝.